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연구

The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bout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안 효 진
동서울대학 아동보육학과
전임강사 임 연 진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yang Univ.

Full-time Instructor : Hyo-Jin Ahn

Dep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DongSeoul College

Full-time Instructor : Youn-Jin L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toward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218 preservice teachers (209 female and 9 male) who wer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 educatio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Song, Sung, & Han (2003).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1.5. The results were followed. First, preservice teachers' personal experiences of single parent families did not influence their perception of children from single-parent family. Second, preservice teachers who strongly held the view of keeping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showed negative expectation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ird, preservice teachers reported the importance to help the children adjustment at school as well as to deal with their personal and family problem. The results presented that there was an increasing need in teacher education, to develop curriculum for preservice teachers to have balanced views or reduce their biased perception against diverse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주제어(Key Words): 예비교사의 인식(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한부모가족 아동(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Corresponding Author: Hyo-Jin Ah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yang Univ. 1 Gyochon-dong, Poongi-eub, Yongjoo-si, Kyungbook, Korea Tel: 82-54-630-1284 Email: ajh0505@dyu.ac.kr

* 본 논문은 2004년 동서울대학 산업기술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교내 학술연구 과제의 자료가 일부 분석됨.

1. 서론

최근 별거 및 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혼 가정 아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이혼율이 세계 3위에 이르고 있는(2001) 우리나라는 학령전의 아동에서부터 학령기에 이르는 아동들의 부모들의 이혼이 43.23%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통계청, 2002). 이 같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전통적인 대가족 구조가 줄어들면서, 성인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한부모 가족, 노인-아동 가족, 노인 가구, 독신가구 등 여러 가족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부모 한사람과 자녀들로만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의 11.6%에 이르고 있으며(통계청, 2002), 점차 서구사회와 같이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구자들은 가족의 변화로 인해 형성된 한부모가족 아동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예를 들어, Shook과 Jurich(1992)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우울 등과 같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낮은 자존심,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부모를 상실한 아동들은 긴장감이나 불완전한 감정처리 등으로 인해 분노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죄의식 등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정현숙, 1993; Amato, 1991). 이러한 한부모가족 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연구하거나, 이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방법들을 고안하는 연구들로 확장이 되었다(이종숙, 1997; 정문자, 이은영, 1999; 허정원, 1998; 황은숙, 2001; Clapp, 2000; Hodge, 1986; Kurdek, Blisk, & Sieky, 1981; Miller, Ryan, & Morrison, 1999). 부모의 이혼 후 아동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는 개별적인 가정 조건,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연령, 성차, 개인적인 기질, 그리고 중요한 타자(형제, 친구, 교사)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들을 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생긴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는 1970년대~1980년대부터 다양한 가족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예: DAP(Divorce Adjustment Project), CODIP(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DAP(Divorce Adjustment Project), CODIP(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이 개발되고, 이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들이 경험하는 분노, 죄책감, 학업 및 행동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성정현, 2001; 주소희, 200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간과한 사실은 이혼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Whitehead(1993)는 이혼자녀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이혼에 대한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 실제 Clap(2000)은 실제 가정 폭력이나 알콜 중독 등의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부모가 이혼하였을 때 10% 정도는 부모의 이혼에 대해 위안을 느끼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부모의 이혼이 늘 부정적인 경험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긍정적인 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일관되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온 편견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예비교사들의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는 아동의 인성발달이나 성장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타자로서(significant others)역할을 하며, 아동들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도 많고, 실제 현직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Ball, Newman, & Scheuren, 1984; Guttman, Geva, & Gefen, 1988; Santrock & Tracy, 1972). 예를 들어, Guttman, Geva, 그리고 Gefen은 (1988)은 현직 교사들이 아동의 가족 형태에 따라 다르게 아동들을 평가한다고 보았다. 즉, 아동의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이혼한 가족 아동에 교사는 사별가족 아동보다 더 낮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고, Santrock과 Tracy(1972)의 연구와 Ball, Newman과 Scheuren(1984)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혼가정 아동에 대해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성정현, 송다영, 한정원(2003)의 연구와 이영민(2004)의 연구에서도 현직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직 교사들의 가족 구조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현직 교사교육에 의미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지만, 교사가 되고자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직전 교사교육에 대한 의미와 방법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한부모가족 아동을 인식하는데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명하는데 비중을 두었다(Ball et al., 1984; Guttman et al., 1988; Newman & Scheuren, 1984). 즉, 교사는 아동을 부모의 결혼지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이혼에 대해 정형화된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는 아동들의 행동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은 소극적이고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학업능력이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사별가족의 아동보다 이혼가족의 아동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어떠한 변인으로 인해 생기고, 그 다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영향을 준다는 Babad(1979)는 Inbar와 함께 한 연구(1982)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편견을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이혼을 하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이혼 가정 아동들에게 더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들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과 교사의 결혼지위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Wallerstein & Kelly, 1977). 교사의 연령이 높고 교사 경험의 기간이 길수록 한부모가족 아동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가족구조에 대해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아봄으로서 한부모가족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과 가족 유지 가치관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2. 예비교사의 개인적 경험(한부모가족에서 성장한 경험, 한부모가족 아동에 만난 경험)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과 가족 유지 가치관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3. 예비교사의 가족구조에 관한 가치관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4. 예비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개인적 경험, 가족에 관한 가치관과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여학생은 209명으로 95.8%를 차지하였고, 남학생은 9명으로 4.2%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은 18세부터 55세까지로 평균은 20세, 중앙치는 19세였다. 학년은 1학년이 118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72명(34.5%), 3학년 26명(12.0%) 순이었다.

2. 연구도구

송다영, 성정현, 한정원(2002)의 질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아동학을 전공한 2인의 전문가에 의한 내용 타당도와 양면

타당도 검증을 통해 사용하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 가족유지 가치관에 대한 인식, 교사의 역할과 지원책에 관한 척도, 그리고 배경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 척도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 척도는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에 관한 8개의 문항,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7개의 문항, 사회적 인식에 관한 9개의 문항으로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에 관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 α 점수는 .85였다.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관한 문항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상황에 대한 것을 묻는 척도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에 관한 문항처럼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 중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은 부모가 자신을 유기할까봐 두려워한다' 외 4개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적임을 의미한다. 이 외 3개의 문항, '부모와 사별하거나 헤어진 유아들에게 그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유아에게 좋지 않다.' '유아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그 영향도 크지 않다.' '부모와 사별하거나 헤어진 유아들은 그 사실을 친구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 라는 질문의 응답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적임을 의미하므로, 역점수를 주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점수는 .71이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사회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 α 점수는 .69였다.

2) 가족유지 가치관에 대한 척도

가족 유지에 대한 척도는 가족구조에 관한 가치관을 질문하는 5개의 문항과 이혼가족 아동과 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차이와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구조에 관한 가치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유지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족 유지 가치관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α 점수는 .80이었다. 이혼가족아동과 사별가족 아동에 대한 차이에 대한 질문은 3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대중매체에 보이는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질문은 실제와 비슷하다. 실제와 부정적이다. 실제와 긍정적이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되게 되어있다.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3호, 2006

3) 예비교사의 배경변인

예비교사의 사회적인 변인과 더불어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한 경험 유무, 한부모가족 아동을 만난 경험, 이혼가족과 사별가족 아동간의 차이 유무 등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2005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98%였다. 그러나 불완전한 응답지는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고 218명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1.5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문제 1번, 2번과 3번에서는 변인에 따른 가족 가치관과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에서는 예비교사의 변인, 가족 가치관과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이 수행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예비교사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력, 연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과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은 하부범주로 학교생활의 부적응, 심리 사회적인 부적응, 사회적인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연령은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F=6.32, p<.001$)과 총점($F=6.18, p<.001$)을 인식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변인들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대한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의 사후검증을 해보았을 때, 교사 연령이 10대 이상과 그 이상의 연령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표 1 참조).

2. 경험적 요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예비교사들의 개인 경험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인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인을 예비교사의 한부모와 산 경험, 한부모가족 아동을 만난 경험으로 하고, 종속변인을 학교생활 부적응, 심리 사회적 부적응, 사회적 인식, 가족 구조 가치관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참조).

3. 가족구조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대중매체 속에서 보이는 한부모가족 및 아동에 대한 표현이 66.5%의 예비교사들은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이나 아동이 대중매체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대중매체 속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슷하게 보이거나($F=19.81, p<.05$) 잘 모르겠다($F=16.48, p<.05$)라고 응답한 예비교사들은 한부모가족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해본 결과 대중매체 속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슷하게 보인다는 예비교사일수록 한부모가족아동의 학교생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가족 구조에 관한 가치관을 인식하는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참조).

사별가족아동과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주로 차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 사별가족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예비교사의 한부모가족 아동과 가족 구조에 관한 가치관

변인	하위범주	N	한부모가족 아동				가족가치관
			학교생활 부적응 (M/SD)	사회-심리적 부적응 (M/SD)	사회적 인식 (M/SD)	총 점 (M/SD)	
성별	남	9	16.88(2.80)	17.44(1.50)	22.44(2.42)	56.44(4.33)	10.0(1.32)
	여	209	17.86(3.99)	18.10(2.18)	22.44(2.42)	58.41(6.42)	10.4(2.01)
	F값		5.26	.81	.16	.73	2.01
연령	10대	127	17.37ab(3.76)	17.85(2.10)	22.09(2.60)	57.31ab(6.80)	10.32ab(2.00)
	20대	81	18.04ab(3.83)	18.33(2.19)	22.81(2.01)	59.19ab(5.96)	10.46ab(1.83)
	30대이상	10	21.80ab(3.94)	18.90(2.46)	23.50(2.40)	64.20ab(8.45)	12.2ab(2.39)
	F값		6.32***	2.01	3.32	6.18***	4.24***
교육	전문대	123	18.22(3.82)	18.07(2.00)	22.23(2.62)	58.53(6.66)	10.83ab(2.04)
	4년제	95	17.30(4.06)	18.08(2.36)	22.67(2.07)	58.06(6.86)	9.97ab(1.82)
	F값		2.94	.001	1.78	.26	10.40***

*** $p<.001$

a, b는 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냄.

〈표 2〉 경험적 변인에 따른 예비교사의 한부모가족아동과 가족 구조에 관한 가치관

변인	하위범주	N	한부모가족 아동				가족가치관
			학교생활 부적응 (M/SD)	사회-심리적 부적응 (M/SD)	사회적 인식 (M/SD)	총 점 (M/SD)	
자란 경험	유 무	37 181	17.70(4.81) 17.85(3.76)	18.13(2.31) 18.07(2.13)	22.64(2.62) 22.38(2.36)	58.88(8.21) 58.29(6.42)	10.59(2.08) 10.43(1.97)
	F값		.043	.03	.49	1.08	.05
만남 경험	거의없음	56	18.37(3.80)	17.98(1.85)	22.33(2.29)	58.69(5.38)	10.75(1.89)
	만났지만 많지않음	135	17.69(3.94)	18.03(2.07)	22.42(2.30)	58.16(6.77)	10.27(2.27)
	자주만남	27	17.33(4.28)	18.48(3.05)	22.42(2.40)	58.40(8.98)	10.46(1.99)
	F값		8.21	.549	.100	11.44	1.62

n.s.

〈표 3〉 정형화 변인에 따른 예비교사의 한부모가족아동과 가족 구조에 관한 가치관

정형화 변인	N(%)	한부모가족 아동				가족가치관	
		학교생활 부적응 (M/SD)	사회-심리적 부적응 (M/SD)	사회적 인식 (M/SD)	총 점 (M/SD)		
대중매체 속의 이미지	비 슷	22(10.1)	19.81ab(3.38)	18.22(2.96)	23.45(1.79)	61.5ab(6.62)	10.77(1.66)
	부정적	145(66.5)	17.71(4.01)	18.19(2.16)	22.22(2.55)	58.12(6.86)	10.57(2.00)
	긍정적	26(11.9)	16.48(3.58)	18.12(1.72)	23.08(2.26)	59.23(6.31)	10.23(1.90)
	잘모르겠다	25(11.5)	16.48ab(3.95)	17.28(1.62)	22.04(1.88)	55.80ab(5.63)	9.84(2.21)
	총 계	218(100)	17.82(3.95)	18.08(2.16)	22.43(2.40)	58.33(6.74)	10.46(1.99)
F값		2.90*	1.30	2.59	3.08*	1.24	
이혼/사별 아동	차이 유	41(18.8)	18.70ab(3.79)	18.52ab(1.88)	22.96ab(2.43)	60.18ab(5.97)	10.51(2.33)
	차이 무	97(44.5)	16.07ab(4.60)	17.20ab(2.14)	21.49ab(2.65)	54.76ab(7.68)	10.52(2.03)
	잘모르겠다	80(36.7)	17.68(3.49)	17.99(2.36)	22.26(2.09)	57.92(6.38)	10.38(1.76)
	총 계	218(100)	17.82(3.96)	18.08(2.16)	22.43(2.41)	58.33(6.74)	10.46(1.99)
	F값		6.75*	5.83*	5.93*	10.360*	.12

*p<.05

a, b는 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냄.

과 이혼가족 아동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 예비교사들도 18.8%가 있었다. 이러한 사별가족아동과 이혼가족 아동 간에 차이를 인식한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사후검증을 해본 결과, 사별가족과 이혼가족 아동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이 학교생활 부적응에서(F= 6.75), 심리, 정서적 생활에서(F=5.8), 그리고 사회적 인식에서 (F=5.93)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즉, 이혼가족 아동이 사별가족 아동보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심리, 정서적 생활에서 더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도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가족 구조가치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참조).

4. 각 변인과 예비교사의 한부모가족 아동 인식 관계

예비교사들의 사회 인구학적변인, 경험적변인, 가족구조 가치관과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은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은 r=.14~.22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예비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며, 사회 심리적으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14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가족 유지에 대한 가치관도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유지를 해야 하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험적 변인은 예비교사들의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과 가족 가치관 인식과 별 관계가 없었다. 가족구조 가치관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혼가정과 사별 가정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할 때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해 r=-.16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혼가정과 사별가정 간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할 때 한

〈표 4〉 변인에 따른 예비교사의 한부모가족아동과 가족 구조와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사회적 변인	1. 성별											
	2. 연령	.11										
	3. 교육	.14*	.06									
경험적 변인	4. 성장경험	.3	.02	-.12								
	5. 만난빈도	.20**	.16*	.21*	-.04							
정형화 변인	6. 대중매체	.20**	.16*	.21**	.03	-.17*						
	7. 사별/이혼	.01	.01	.07	-.02	.07	.15*					
한부모 가족아동 인식	8. 학교생활 부적응	-.05	.20**	-.12	.01	-.09	-.16*	.10				
	9. 심리정서 부적응	-.06	.14*	.00	-.01	.06	-.11	.09	.42**			
	10. 사회적 인식	-.03	.17*	.09	-.04	.03	-.06	.07	.45*	.35**		
	11. 총점	-.06	.22**	-.04	-.01	-.02	-.15*	.11	.88**	.69**	.58	
12. 가족유지가치관		-.05	.14*	-.21**	-.03	-.03	-.13	-.03	.11	.05	-.07	.06

*p<.05, **p<.01

부모가족 아동은 학교생활을 잘한다는 경향이 있다.

예비교사의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및 심리·사회적 부적응, 사회적 인식 간에는 $r=.35\sim.88$ 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 즉,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사회적 부적응,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가족 유지에 대한 가치관과 한부모가족아동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예비교사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교사교육 차원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몇 가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에 따라 예비교사가 어떻게 한부모가족 아동과 가족 유지에 대한 가치관이 나타나는지 살펴 보았다. 예비교사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은 한부모가족 아동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가족 유지 가치관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예비교사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현직교사를 연구한 송다영 외(2003)의 연구와 Babad와 그의 동료들(1982)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예비교사들인 경우에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였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은 아동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극복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이에 반해 한부모가족 아동들의 심리, 정서적

부적응이나 사회적인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심리적인 부적응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교사들의 정서적인 지지망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서구의 여러 결과와 이러한 결과는 예비교사들이 편견이 없는 상태로 한부모가족 아동들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으며, 가족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교육 정도도 가족 구조 가치관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개인적인 경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에 인식하거나 가족 유지 가치관을 살펴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교사자신이 성장과정 동안 한부모가족이었던 자신의 경험 여부나 접촉의 빈도나 횟수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Amato, 1991).

셋째, 예비교사들의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을 대중매체 속에서 보이는 한부모가족과 그 아동에 대한 인식과 사별가족 아동과 이혼 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중 매체 속에서 보이는 한부모가족 아동과 가족에 대해 대부분의 예비교사들(66%)은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표현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대중 매체 속의 이미지와 실제가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예비교사들은 한부모가족 아동들의 학교생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대중매체 속의 이미지와 가족 가치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부모가족 아동이 된 원인인 사별가정과 이혼가정 아동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는 차이가 없거나(44.5%) 잘 모르겠다(36.7%)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 예비교사도 18.8%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사회, 심리적 적응,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은

넷째, 예비교사들의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연령과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나타냈다. 가족가치관과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심리 정서적으로 더 부적응한다고 생각을 하며, 사회적인 인식도 낮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Santrock과 Tracy(1978)의 연구에서처럼 아동의 지위에 따라 이들의 학교생활, 사회적 인식, 심리 정서적 적응을 낮게 평가한다는 경향과 일맥상통한다(Jacoby, 2000 재인용).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예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유지에 대한 가치관이나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이 직접 만난 경험이나 빈도보다는 교사의 정형화된 인식이나 가치관에 기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변화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 교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급속히 변화되는 시점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전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한부모가족과 그 아동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이나 편견을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형화된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각 교재나 토론 방법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양하게 변화되는 가족 유형의 출현에 대해 예비교사들의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실천방안을 제고해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결과는 예비교사들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교실 상황에서의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차별적인 인식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공선영(2000). 모자가족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신(2003).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연구. 가정학회지, 41(7), 141-159.

김경집(2002). 이혼가정유아 적응 프로그램 고찰. 연세 교육연구, 15(1), 1-17.

김영애(2002). 학교현장에서의 한부모자녀 경험사례발표. 한부모자녀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1-18.

김혜련(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현숙, 김득성(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0(6), 1-15.

박해미, 정종원(2001). 반편견 교육과정의 적용: 이혼개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0(4), 127-147.

성정현(1998). 이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문제와 대처전략. 사회복지학연구, 11(1), 48-61.

성정현, 송다영, 한정원(2002). 이혼 가족 및 사별가족 유아에 대한 교사의 인식-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11, 9-34.

송다영, 성정현(2003). 가족구조와 형태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과 문화, 15(2), 81-113.

오은순(1997). 이혼가정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오은순(2001). 이혼가정 유아의 적응을 위한 학교중심 집단 상담프로그램 개발. 열린 교육연구, 9(1), 19-45.

이영민(2004). 한부모와 조손 가족유아의 특성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조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종숙(1997). 집단특성의 긍정성과 전형성이 외집단 동질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3(1), 30-43.

정문자, 김은영(1999). 이혼가족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탐색. 생활과학 논집, 13(1), 34-42.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적응. 유아학회지, 14(1), 59-75.

주소희(2002). 이혼가정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77-106.

통계청(2002). 2002년 인구 동태 통계 연보(혼인, 이혼편). 통계청.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2003). 이혼 태도와 관련요인. 가족

- 과 문화, 15(1).
- 한국 여성 민우회 (1999). 한부모가족 의식 및 욕구기초조사.
- 허정원(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은숙(2001). 한부모가족에 대한 반편견 유아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유아복지학과 석사학위.
- Amato, P. (2001).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 (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3), 355-370.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1), 26-46.
- Ball, D., Newman, J. M., & Scheuren, W. G. (1984). Teacher's generalized expectations of children of divorce. *Psychological Reports*, 54, 347-353.
- Carlile, C. (1991). How teachers can help ease the pain children of divorce. *Childhood Education*, 67(4), 232-234.
- Clapp, G. (2000). *Divorce and New Beginnings*. John Wiley & Sons, Inc.
- Derman-Sparks, L., & the A. B. C. Task Force (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NAEYC.
- Guttman, J., Geva, N., & Gefen, S. (1988). teachers' and school children's stereotype perception of the children of divorc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4), 555-571.
- Hetherington, E. M. (1991).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family relationships in children's coping with divorce and remarriage. In P. A. Cowen & E. M. Hetherington, (Ed.) *Family Transition*,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Hodge, W. (1986).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Custody, Access, and Psychotherapy*.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Kurdek, L., Blisk, D., & Sieky, A. (1981). Correlates of children's long term adjustment to their parents' divorce. *Developmental Psychology*, 17(5), 565-579.
- Miller, P., Ryan, P., & Morrison, W. (1999). Practical strategies for helping children of divorce in today's classroom. *Childhood Education*, 76, 285-289.
- Pamela, A. K., & Gail, G. S. (1998). Easing the pain of divorce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6(2), 89-94.
- Pedro-Caroll, J. L., Alpert-Grills, L. J., & Cowen, E. L. (1992). An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4th-6th grade urba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3, 115-130.
- Pedro-Carroll, J., Sutton, S., & Wyman, P. (1999). A two-year-follow up evaluation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of divorce. *The School Psychology Review*, 28(3), 467-476.
- Santrock, J., & Tracy, R. (1978). Effects of children's family structure status on the development of stereotypes by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754-755.
- Shook, & Jurich (1992). Correlates of self-esteem among college offspring from divorced families: A study of gender-based differenc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8, 157-176.
- Smilansky, S. (2002). 이혼 가정유아: 가정과 학교의 역할. 오은순 역. 학지사.
- Stolberg, A. L., & Mahler, J. (1994). Enhancing treating gains in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through skill building, parental involvement and transfer proced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1), 147-156.
- Wallerstein, J. S., & Blakeslee, S. (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Ticknor & Fields.
- Whitehead, J. (1993). Why children choose to do sport- or stop. In Lee, M(Ed.), *Coaching Children in Divorce*(p.109-120). London: E & FN Spon.

(2005년 9월 5일 접수, 2005년 12월 12일 채택)